

춘천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단상 An Anthropological Glimpse on Chuncheon

한경구 / 강원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by Han Kyung-Koo

문화인류학자는 본래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현지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깊이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는다. 그러나 나는 춘천에 직장을 잡은 지 7년이 되었건만 아직 한번도 춘천을 체계적으로 조사해보지 않았으며, 춘천은 내게 근무처인 강원대학교의 소재지일 따름이었다. 연구실에서 나와 밥을 먹거나 머리 식히러 영화구경을 가는 것 등이 춘천 생활의 전부인 나로서, 또 주말을 거의 서울에서 지내는 나로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아니라 단지 인상에 입각하여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의 강권에 못 이겨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보았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춘천은 아름다운 산과 강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다. 춘천에는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이 없고 강원도 행정의 중심지이며 또한 교육도시이다. 그러므로 춘천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며 문화적인 도시로 가꿀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큰 곳이다. 그런데 지금의 춘천의 모습은 너무나 밋고 촌스럽고 어수선해서 춘천을 보고 있노라면 공연히 화가 난다. 춘천시내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눈에 보이는 시내의 건축물들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 특히 외곽도로로 나아가 구봉산 휴게소 근방에서 춘천 시내를 굽어 보면 너무나 화가 난다.

춘천에는 별다른 산업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예

쁘게, 정말 예쁘게 도시를 계획할 수 있으면만 왜 그렇지 못한 걸까? 그저 시내를 쏘다니는 것만으로도, 높은 곳에서 바라다 보는 것만으로도 춘천이 푸근하게 느껴지거나 아기자기하다는 느낌을 줄 수는 없을까? 그저 시내를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수는 없을까?

외부인에게 불친절한 도시

'호반의 도시'라는 명칭은 무언가 매우 아름답고 낭만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나 열차편이나 버스편으로 춘천에 도착하면서 그러한 기대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남춘천역에 내려서 개찰구를 빠져나오면 비좁고 복잡한 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춘천역 앞은 비교적 널찍한 터가 있기는 하지만 낡고 멋없는 역건물은 아름다움과 낭만의 도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시외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이다. 좁고 지저분하고 불편하다. 전국 어느 도청 소재지의 역이나 버스터미널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어느 관광지가 이럴 수가 있는가? 춘천에도 약간 화려한 곳도 있고 깨끗한 곳도 있는데 어떻게 춘천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는가?

또 관광안내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내교통과 시외로의 연결에 대한 안내 같은 것이 거의 없다. 놀러온 사람들이야 그렇다치고 병역의무를 위해 102보충대에 가려고 춘천역에 내린 젊은 이들은 참으로 황당하다. 택시를 타면 흔히 바가지를 쓰게 된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춘천이라는 좋은 이미지에 끌려서 이 곳을 찾아오는데, 정작 춘천은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잘 받고 잘 기억될 생각이 없는 도시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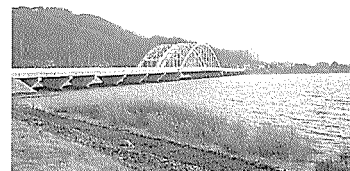
춘천은 도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불편하며, 또 그렇다고 하여 푸근한 느낌을 주는 마을이나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복잡하다. 춘천은 상공업이 크게 발전한 곳이 아니다. 그래서 시와 군을 통합하여 인구가 24만이 되었지만 도시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다. 또한 도시로서의 합리성과 편의도 상당히 미흡하다. 그 작은 예로 춘천에서는 대부분의 목욕탕이 화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춘천 사람들이 화요일을 피할 수 있지만 화요일에 춘천을 찾는 사람들은 억지로 도청 앞의 사우나 같은 곳에 가야 따뜻하게 목욕을 할 수 있다. 춘천은 이렇게 불친절한 곳이다.



구봉산에서 바라본 춘천



봉의산 배면의 모습



봉의산과 의암호

촌스럽고 어수선한 거리

최근에는 명동과 중앙로 광장을 중심으로 건물들이 많이 늘었다. 도청 소재지이다보니 관공서 등 각 기관과 은행의 지사나 지점이 많다. 새로이 건물을 지으면서 나름대로는 멋을 냈는데, 건물들은 제각기 품을 잡고 있을 뿐 옆 건물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다. 건물들이 “각개약진”을 하고 있다고나 할까?

건물들이 서로 조화가 되지 않음은 물론 전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도 않다. 중앙로 광장은 은행 등 새롭고 멋있는 건물들이 점령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매우 배타적이다. 사람을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 주변에 새로 들어선 제법 고층인 건물들은 어느 한 쪽에서 보면 그럴 듯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마치 속옷이 드러난 듯 이상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사방에서 보는 건물을 저렇게 무시하 지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점은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강원대는 국립대학이면서도 건물들간에는 물론 춘천시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다. 밤이면 시커멓게 변하는 학교 주변과 건물들도 멋없이 크기만 하다. 강원대학 내의 건물들에서조차 강원도를 대표하거나 춘천을 상징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학교 안의 녹지 공간은 사라져가고 있다.

“춘천다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리

춘천의 시내를 돌아다녀도 이곳이 춘천이라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다. 아무렇게나 제각기 자기가 잘났다고 품을 잡고 있는 건물들, 전혀 춘천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기능과 디자인의 건물들이다. 간판을 읽지 않으면 이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춘천하면 떠올릴 수 있는 거리도 없고 상징물도 시내에는 없다. 정겨운 거리가 있는가? 추억의 거리가 있는가? 소양댐이나 청평사 같이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춘천 시내의 건축공간으로서 기억에 떠올릴 것이 없다. 그러나 “아, 춘천이다”를 시내에서는 느낄 수 없다. 그렇다면 춘천은 어디에 있는가? 춘천은 없고 춘천에 대한 환상만 있는가? 춘천은 아름답지 않고 춘천답지 않더라도, 춘천 가는 길만 아름답고 추억에 남으면 되는가? 공지천이나 소양고 앞에 서거나 춘천의

외곽에 나가서야 이곳이 춘천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가? 아직도 이디오피아가 춘천을 상징하는가? 춘천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춘천 사람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춘천 사람들은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는가? 춘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춘천의 거리를 아무리 걸어도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리는 없다. 왜 춘천의 특징은 춘천 사람들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 뿐인가? 춘천하면 생각나는 것이 닭갈비, 경춘선 기차, 소양댐, 춘천 가는 길, 막국수, 공지천, 청평사, 이디오피아 등이라는 주장은 깊이 새겨 볼만하다.

댐이 3개나 생기면서 춘천은 호반의 도시가 되었다. 그 결과 원래 분지였던 춘천은 겨울에는 춥고 습하고 여름에는 덥고 습한 곳이 되었다. 가을에는 안개가 심하고 때로는 숨쉬기가 불편하기도 하다. 이러한 기후조건에 대한 건축적 배려도 아직은 찾아보기 힘들다.

걷고 싶은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춘천 시내에는 걷고 싶은 곳이 없다. 그저 걷는 것이 즐거운 곳이 없다. 거리가 정겹게 느껴지지 않는다. 춘천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호반의 도시라는 아름다운 이미지에 걸맞은 곳이 시내에 없다. 강원대학과 한림대학이 있고, 교육대학과 전문대학까지 있는 도시, 교육과 문화의 도시라고도 하는 곳에, 정붙일 거리가 없다. 학생이 2만명 가깝고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합치면 도대체 대학과 관련된 인구가 전체의 얼마나 되는가? 주간 인구 중 석·박사의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도시라고 농담을 하는 곳이지만, 문화를 파는 곳 - 책방이라도 좋고, 화방이나 문방구를 파는 곳, 악기나 음반을 파는 곳이라도 좋은데 - 이 거리를 이루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지는 않다. 학교 주변은 운동장과 당구장, 미장원이 가득 차 있고, 시와 예술과 학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과 문화의 도시에서 문화를 왜 이렇게 찾기 힘든 것일까? 심지어는 명동조차도 눈요기를 하면서 걷고 싶은 곳이라고 하기 힘들다.

정말 화가 난다. 게다가 보도의 포석은 왜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깔려있고 또 깨져있는지. 거리는 왜 그렇게 지저분한지. 보도는 너무나 좁거나 아예 없는 곳이 많고, 그래서 한눈 팔면서 한기롭게 그리고 여유있게 걸을 곳이 없다. 자



관광 안내판



중앙로 광장변의 은행들



도심의 고층빌딩

기 건물은 멋있게 지어놓았으나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가는 공간은 엉망이다. 건물이 있는 공간과 건물이 없는 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어떠한 의미나 느낌을 주는 곳이 너무나 드물다.

춘천의 모든 거리는 자동차가 구석구석까지 너무 많이 들어오고 또 아무 데나 주차하고 있다. 시내가 그리 크지 않으니 웬만한 곳 같으면 걸어가거나 자전거로 가고 싶건만... 걸거나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 그리 즐겁지 않고 위험하기만 한 도시다. 석사동이나 후평동 그리고 퇴계동 등 새로이 개발한 지역들도 이면 도로가 너무나 좁아서 불편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새로이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렇게 도로를 좁게 만들 수 있는지?

사람을 부르지 않는 거리, 사람이 모이지 않는 광장

시내가 아늑하다는 기분이 없고 그저 어수선하며 불친절하다. 시민들이 과연 앉아 있고 싶은 곳이 있는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모이고 쉬고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흐릿한 곳이 없다. 춘천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가? 또는 시내에는 가지 않고 모두 시내 밖으로, 즉 산으로 강으로 나가는가?

춘천에는 광장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나 이 광장들은 이름만 광장이지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은 아니다. 광장은 그저 자동차 길이 만나는 곳일 뿐이다. 자동차가 많고 복잡한 곳일 따름이지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닌 것 같다.

기껏해야 시청 문 앞에 있는 넓은 터가 가끔 광장처럼 사용되기는 하지만 피카디리극장이 있는 건물만이 약간의 배려를 했을 뿐, 주변의 건물들은 그러한 공간적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역의 정치가가 공동체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이나 교류를 촉진해주는 건축적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사람들이 자연히 모이는 곳이란 아직도 시장뿐이라는 느낌이 든다.

왜 이럴까: 머무르는 곳

왜 춘천의 시내에서 춘천다움을 찾아볼 수 없을까? 왜 춘천의 건물들이 각개약진을 할까? 왜 중심이 되는 테마도 없는 것 같고 건물들이 그리도 서로 배려가 없는 것일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춘천을 뿌리를 내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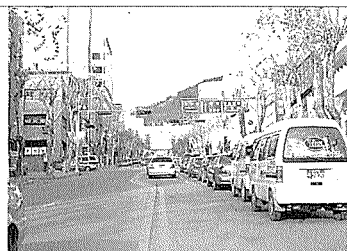
영원히 살 곳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잠시 머무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춘천은 도청 소재지가 되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래서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의 건물이 많지만,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에게 있어 춘천은 잠시 머무르는 곳일 따름이다. 이들은 춘천의 주민(Resident)이라기보다는 잠시 머무르는 사람(Sojourner)에 불과하다.

그러니 춘천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된다. 춘천은 이들이 잠시동안 파견나와 있는 곳이다. 그저 있는 동안에 가끔적 돈을 적게 들이면서 편하게 지내면 그 뿐이라는 생각이다. 조금 불편하거나 못마땅하더라도 참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로서는 춘천의 스카이라인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거나 불편을 감수할 이유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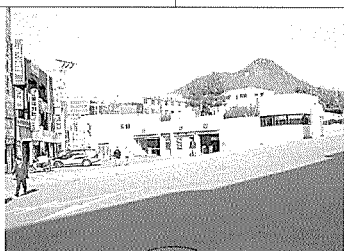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 외부인들만 비난할 수도 없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살아갈 춘천 사람들조차 그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예를 들자면 춘천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커다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춘천의 아름다움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는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또한 그 비용의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지방자치치가 시작되었으니 이러한 의식이 변화할까? 아니면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엘리트들도 역시 "내가 책임하는 동안에 한 건 해아지"라는 생각에서 '머무르는 사람'들과 동일한 결정을 내릴까? 그 사람들도 춘천이 30년 뒤에 또는 50년 뒤에 어떠한 모습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건물을 지을까? 슈퍼에서 물건을 사듯이 건물을 지을까? 당장 쓰기 편하고 싸다고, 또는 당장 눈에 띄다고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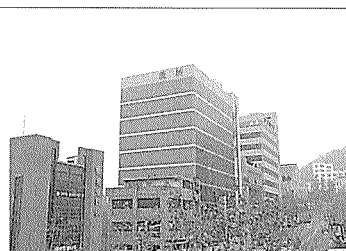
향토건축이 발전하고 춘천이 건축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들만의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 전문가가 지식과 기술을 살려 이러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엘리트가 장기적인 문화적 안목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춘천을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의 바람과 목소리가 춘천의 건축물과 공간의 조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중양로 도청길



시청앞 광장



도청앞의 상업건물